골프채를 꺾자 !

1992년 새 해가 밝으면서, 경제위기 의식이 팽배, 온 사회가 열병을 앓고 있는 듯 떠들썩하다.
새 해 첫날부터 TV에서는 「30분 일 더하기」운동 방영을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고, 온통 경제위기와 무역적자의 원인이 근로자들에게 있는 양 야단법석이다.
90년대에 들어 한국경제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80년대가 저물면서 100억달러 무역흑자의 콧노래는 100억달러 무역적자의 한숨으로 뒤바뀌었고, GNP 5000달러의 선진국화 병은, 마치 2만달러 소득을 올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부자들 못지않은 과소비의 열풍에 휩싸이게 했다.
또 밍크코트 한벌에 수백만원은 예사고, 한장에 각각 20만 30만원하는 팬티₩브래지어가 불티나게 팔리는가 하면, 우리의 국산제품에 버금가는 식기가 수십배 비싸게 팔리는 데도 「머리 돈」 여인네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강남의 룸살롱들은 호화와 퇴폐의 극치를 달리고, 3 4명의 하룻밤 술값으로 100만원은 보통인데도 여전히 흥청망청하는 회사원들의 유흥가 출입은 날이 셀 줄을 모른다 한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한 달 급료가 100만원 안팎인 그들이 하룻밤 술값으로 그 돈을 지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쓰는 유흥비는 주머니 돈이 아니라, 그들이 몸 바쳐 일하는 회사 돈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요새는 날씨가 추워 덜 하다고는 하지만 주제에 걸맞지 않는 골프족들의 한가함과 광기도 우리 경제위기의 주범이 아니고 무엇인가.
비좁은 국토, 아니 비좁다 못해 땅 빼앗기에 온 국민들이 열병에 시달리는 이 시국에, 그 비싼 땅 수십만평을 깍아서 수십개의 골프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한가롭다 못해 골프의 광기에 걸려 생업마저 팽개쳐버린 그들은 누구인가.
플래스틱 가공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면서 쓰러져가는 데도, 합성수지업체 간부들에게 골프 대접을 강요하는 가공업체 사장들은, 오늘 한국의 경제위기를 알고 있는 지 지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사명감을 저버리고 촌지와 관변 여론 홍보에 열을 올리는 장사속 사이비 언론, 권위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쓸개빠진 무능한 관료들, 하루의 노동 댓가로 1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열심히 일하기를 기피하는 일부 노동자들, 한국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주제에 맞지않게 자가용 굴리면서 바캉스니 단풍구경이니 하면서 교통난이나 부추기고, 그 비용을 기업과 사회에 떠넘기면서 임금인상 투쟁을 벌이는 한심스러운 화이트칼라들 등등…
우리 사회를 좀먹는 「없어져야」할 족속들이다.
특히 땅 투기나 증권투기에 열을 올리면서 사회의 일할 의욕을 송두리 채 빼앗아 버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투기꾼들, 어느 날 갑자기 거부가 돼 돈을 물쓰듯 하면서 돈 쓰는 게 상위 계층으로 가는 지름길인 양 착각속에 빠져 있는 졸부들은, 우리가 선진 사회 그리고 선진 경제로 가기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암적 존재들이다.
한마디로 「내 돈 내가 쓰는 데 왠 참견이냐」는 졸부들, 「회사 돈 좀 쓴다고 뭐 잘못 됐느냐」는 사고방식의 간부들, 「집 사기도 어려운 판에 저축은 해서 뭐하느냐」고 자포자기하면서 흥청망청쓰는 젊은 층, 「열심히 공부한 게 뭣 때문인데, 좀 빼앗아 먹기로서니…」하는 더럽다 못해 치사하기 까지한 사이비 언론인, 무능한 관료 그리고 사(師)자가 붙은 나부랭이들 때문에 사회가 병들고,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 나아가 사회가 올바르게 성장₩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내가 노력한 만큼 바라는」, 그리고 「노력없는 댓가」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용기와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한 해 땅 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수백조원은 국민 총 생산의 30 40%에 달하고, 정부 예산의 3 4배에 달하는 현실에서 근로자들에게만 「30분 일 더하기」운동을 벌인들 먹혀들어갈 리 없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오늘 우리경제의 위기, 즉 무역적자 100억 달러, 물가의 널뛰기(정부 발표 9.6%를 믿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기업들의 매출₩순익 감소로 인한 경영위기 등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 그리고 앞에 열거한 「쓰레기」들이 모두가 연대해서 책임져야 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는 점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92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노력하는 「새로움을 향한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화학저널 1992/1/15>